

# 신안 '섬 낙지축제' 취소

### 이달 개최 예정 코로나19 감염 차단 위해 결정 박우량 군수 "영양가 높은 신안 낙지 많이 찾길"



신안군은 6월중 압해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신안 '섬 낙지축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 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안갯벌은 낙지의 산란, 서식지 및 전국 최대 습지보호지역로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고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오래전부터 맨손으로 갯벌 낙지가 포획되었으며 이로인해 신안 갯벌 낙지 맨손 어업은 2018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됐다. 신안군은 작년 9월 낙지잡이 대

회를 개최하여 7명의 장인을 선발, '신안군 수산업 장인'으로 지정해 분기별 50만원씩 2년간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하고 갯벌낙지를 잡는 기술과 전통적인 어법 보전에 힘쓰고 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약 1,000여 가에서 연평균 약 20만점(생산액 150억원)이 생산되고 있으며, 신안 수산연구소에서는 일 품은 어미낙지를 3년동안 약 43,000미를 교접, 방류하여 낙지자원 회복과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천사대교 인접지에 위치한 압해읍 송공항에 섬 빨낙지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신안 낙지를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으나, 신안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찰지고 맛과 영양가가 높은 신안 낙지를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핫'하게 뜬 목포관광, 흥행 이어간다

### 항구포차·유람선·스카이워크 등 새 관광 인프라 속속



지난 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강자로 무섭게 떠오른 목포가 올해 다시 한 번 주목 받을 것 같다.

올 해 초 대한민국 4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발전의 호기를 맞은 목포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이 시기를 오히려 지역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해 근대역사문화자원 및 맛의 관광상품화, 국내최장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전망대와 해상데크 등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은데 이어, 올 해도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선보인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자리한 삼학도의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

항구의 맛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목포 항구포차'가 오는 12일 첫 승선을 맞는다. 시는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은 명품 포차단

등과 함께 목포의 밤바다를 화려하게 밝히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세월 지역민들이 사랑하던 명소였지만, 별다른 즐길거리가 없어 발길이 뜸해졌던 목포대반동 해안에는 조만간 새로운 관광자원이 들어선다.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목포대교, 서해의 낙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을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14억원을 들여 바다 위로 돌출되어 있는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있다.

길이 54m, 높이 12m~15m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바다는 투명한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바다위를 걷는 듯 한 스릴감도 선사한다. 환상적인 뷰와 짜릿한 스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기대된다.

6월말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톨릭 목포성지의 '레지오마리아 기념 성당'과 연말 개관 예정인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도 꼭 들려야 할 명소가 될 듯하다.

보고, 먹고, 체험하고, 목포를 즐기는 방법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5일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 선정을 기념하고,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목포 관광이 다시 한 번 화려한 비상의 날개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 함평군보건소-씨젠의료재단, '간염검사' 업무협약 체결

### 국내 최대 질병검사기관...주민 대상 무료 검사 실시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는 최근 국내 최대 질병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대표원장 박찬주)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염(B형·C형) 검사들

무료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간암 발병률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만성간염을 예방하고 간암 고위험군의 조기검진과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40세 이상 지역주민 1천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간염검사를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B형·C형 간염으로, A·B·C형 간염 중 유일하게 국가검진항목에 빠져있는 C형 간염이 이번 검사항목에 포함됐다.

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은 "간암의 경우 소위 침묵의 장기로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며, "특히 C형 간염의 경우 국내 유병률은 높지만 조기발견과 치료율이 낮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무료로 검사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전승 활동 박차

영광군과 법성포단오보존회(회장 김한균)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법성포단오제 전승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법성포단오제 전승

교육관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6월 전시관을 개관하며 보존회는 전승교육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관이 하나되어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에 힘쓰고 있다. 전시관은 법성

포단오제를 널리 알리고 전승하기 위하여 법성포단오제 전승교육관 1층 전시실(278.4㎡)에 조성된다.

군 관계자는 "전시관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법성포단오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무안군, 음식관광 활성화 위한 맛집 육성 '박차'

### 요리대회 수상작 보급 위한 현장 컨설팅 실시

무안군은 지난 5월26일부터 무안맛집 육성을 위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무안연꽃축제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요식업체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컨설턴트의 평가를 거친 후 최종 5개 업체를

확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메뉴개발, 위생관리, 판매전략, 고객서비스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TBK외식창업전략연구소 김태수 소장와 조리의 명인 구분길 대가가 함께 추진하는 컨설팅의 1:1 현장 코칭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13회의 무안요리경연대회 역대

수상작들이 관내 요식업체를 통해 보급되어 양파, 고구마, 낙지, 한우 등 무안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음식관광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맛집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무안의 먹거리 시장이 한층 더 돋보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